



되돌아 보기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한 해가 간다. 세밑의 막바지, 12월엔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간 날들을 더듬어 보게 된다. — 삼백예순다섯 날 가운데 어느 하루, 이십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 단 하루만이라도 ‘흡족한 날’이라고 손꼽을 수 있다면 그 해는 성공적이었다고 기록해도 좋을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한 가정은 아주 독특한 연말 행사를 치른다. 이젠 어엿한 대학생 자녀를 둔 이 가정은 선달 그믐날 한 자리에 모두 모인 뒤 ‘약속상자’를 여는 행사를 수 년째 해오고 있다. 이 ‘약속상자’는 새해 첫날 탄생한 것이다. 이 약속상자 속에는 작은 바램이 들어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밝힌 새해 설계를 쪽지에 적어 담아둔 것이다.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꼭꼭 봉합한 이 상자는 선달 그믐날이 돼서야 비로소 묶은 면지를 털어내고 속내를 들어낸다. 한 자리에 다시 모인 가족은 각자 자신이 넣어둔 쪽지를 꺼내 한 해 동안 이를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 보며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 약속상자를 창조(?)한 데에는 까닭이 있다. 새해가 되면 가장을 비롯해 모두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약속을 하지만 정작 한 해를 마감할 즈음에는 다른 이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정작 자기 자신조차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부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처음에는 별반 소득이 없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커서 한껏 욕심을 부렸으나 정작 실천은 뒷전이어서 ‘작심 3일(作心三日)’이 기 십상인지라 누구라 할 것 없이 제대로 지킨 약



속이 한 가지도 없었던 게 태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 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매번 말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더구나 그 다음날은 새로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새해 첫날인 만큼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자괴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 자연스레 해를 거듭해가며 ‘쪽지’의 완성도는 높아져 갔고 그만큼 가족들은 세 밑 약속상자를 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누구나 새해엔 희망을 건다.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희망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희망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년간 자신을 담금질하여 마침내 성과를 거두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희망을 제 것으로 삼는 첫 걸음은 바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를 얼마나 실천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쉽게도 모든 일에 점검하고 평가하기를 게을리 한다.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약속 뒤엔 이런 우리의 일그러진 생활문화가 숨쉬고 있다. ‘되돌아 보기’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어제 보다 나은 오늘, 나아가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어떠한가. 올 선달 그믐밤엔 온 가족이 촛불 아래 둘러 앉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 해,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반추해봄이.